

바다 떠도는 양만 1만t... 피해 커지나

해안 뒤덮는 갯생이모자반

지난 3일까지 4400t 수거
평년 2배 넘는 유입량에
도, 선제 대응 못해 피해 ↑
추가 습격 우려에 '비상'

'여름철 제주바다의 불청객' 갯생이모자반이 제주해안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의 선제적 대응에 실패하면서 수거난은 물론 향후 처리난이 우려된다. 특히 현재 1만t(추정치) 상당의 해상에 표류 중으로 해류와 바람 방향에 따라 언제든 제주해안을 '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올해 도내 갯생이모자반 수거량은 4400t으로 가장 많은 양을 수거했던 2017년 전체 양(4407t)과 맞먹는다. 최근 4년간 연도별 수거량은 2016년 2441t, 2017년 4407t, 2018년 2150t, 2019년 860t 등이다.

문제는 현재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갯생이모자반이 제주해안으로 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는 앞서 지난달 초, 갯생이모자반 유입 모니터링을 통해 평년에 비해 양이 적어 선제적 대응을 통해 해결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해류와 바람 방향 등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발생한 갯



4일 제주시 조천읍 해안가에서 해병대제9여단 장병들이 떠밀려 온 갯생이모자반을 수거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생이모자반이 제주해안 일대의 해안가를 덮치면서 어업활동은 물론 양식장, 해수욕장, 해양관광지 등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당초 갯생이모자반이 조류를 타고 남쪽으로 갈 것으로 판단했지만 동풍을 타면서 제주와 남해안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대규모로 유입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갯생이모자반 피해방지 대책본부'를 구성, 최근 1·2차 회의를 통해 향후 업무

분장과 함께 수거 및 처리문제 등을 논의하고 조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해안을 청소하는 전용선박인 50~70t 규모의 청항선 5척과 함께 민간수중정화선 1척 등 선박 6척을 비롯해 바다지킴이 170명, 그리고 민관협동 수거활동을 통해 해상 및 육상에서의 갯생이모자반 수거에 나서고 있다. 또한 퇴비나 화학비료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와 제조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유

입량이 평년보다 2배 수준으로 예상되면 향후 처리난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바다의 불청객인 파래도 제주해안을 덮치면서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연간 도내에서 발생하는 파래량은 제주 동부권 해안을 중심으로 1000t가량이다. 여기에 7월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을 앞둔 해파리의 출현 시기도 다가오면서 행정당국이 초긴장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준비 '착착'

5개 분야 사업 계획 확정 온라인 아트마켓 등 시작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서귀포시는 오는 2024년까지 5년 동안 법정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5

개 분야 20개 추진사업의 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 내 105개 마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자산을 씨앗으로 삼아 시민들이 직접 가꾸어 나가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청년작가 지원을 위한 서귀포 온라인 아트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또 오는 6월말까지 시민들의 소규모 문화자조모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문화클럽', 마을에 소재하고 있는 책방·공방·문화의 집 등 문화공간을 거점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을문화공간네트워크' 사업의 참여자·단체를 모집한다. 노지문화를 주제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도시 브랜드 디자인 공모사업,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아카이빙하는 '마을삼촌 그림이야기책' 프로그램도 6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서귀포의 발전 및 서귀포시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는 사업"이라며 "6월부터는 시민들이 문화도시 서귀포를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영총기자

청소인력 1220명 공개 채용

제주시는 올 하반기 청소인력 기간 제근로자 122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4일 밝혔다.

총 11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 모집

분야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600명 ▷읍면동 365일 쓰레기 수집·운반 주말 수거인력 186명 ▷가로환경정비인력 126명 ▷청소행정기동반 27명 ▷클린하우스와 음식물쓰레기종량기 세척인력 83명 ▷재

활용도움센터 도우미 155명 ▷음식물쓰레기 주말수거 인력 43명이다. 모집은 각 읍면동에서 6월 중 채용공고를 통해 모집하는데, 만 55세 이상 장년층을 채용해 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

채용공고 세부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http://www.jeju.go.kr)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소구 양배추' 새 소득작물로 뜰까

농기센터, 봄 재배 실증시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3월에서 5월까지 재배하는 봄 재배 '소구 양배추'를 동부지역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김녕농협과 공동으로 마늘, 양파 등 일부 농작물로 편중돼 있는 발작물 작부체계를 다양화하고 새로운 소득작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2농가·1ha에 '소구 양배추' 봄재배 실증시험을 추진해 지난달 29일 첫 수확했다.

이번에 생산된 '소구 양배추' 전량은 김녕농협을 통해 1개에 1000~1200원에 출하되면서 10a당 350만

원의 조수입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5월 이후 타지역에서 출하되는 '소구 양배추'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5월 상·중순으로 수확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동부농기센터는 내년 봄(3-5월)에는 소구 양배추, 여름(6-11월)에는 콩, 겨울(12-2월)은 시금치·유채나물을 재배하는 새 소득작목 및 작부체계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소구 양배추'는 무게가 0.7~1.0kg 내외로 기존 양배추 보다 무게와 크기가 1/4 수준이지만, 당도가 높고 잎이 얇아서 생식과 셀러드용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멸종위기 '개가시나무' 자생지 살린다

여미지, 서식지 복원사업 환경면에 30여 그루 식재

2급 멸종위기야생생물인 '개가시나무' 자생지가 복원된다.

여미지식물원은 4일 제주시 환경면 일대에서 개가시나무 30여 그루를 식재하는 행사를 가졌다. 여미지식물원은 환경부 지정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멸종위기야생식물의 종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가시나무 대체서식지 복원사업은 환경부의 지원 아래 여미지식물원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개가시나무는 상록성 큰키나무로 20~30m까지 자란다. 국내 가시나무류 중 잔가지가 많아 개가시나무란 이름이 붙었다. 돌가시나무라 불리기도 한다.



2급 멸종위기야생생물로 지정돼 있는 개가시나무. 사진=여미지식물원 제공

개가시나무는 제주도에 분포하는 나무로 흔하지만 있을 때는 잘 자라는 나무이지만, 자생지 개발 및 단편화로 그 수가 증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

현영총기자 yihyeon@ihalla.com

기자 진로탐색 프로그램 신문협회, 참가학교 모집

한국신문협회(회장 홍준호)는 '2020 신문기자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교(학급) 150곳을 오는 8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신문기자 진로탐색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신문협회 전국 회원 신문사 기자들이 일선 초·중·고등학교를 방문, 직업으로서의 기자, 신문을 활용

한 진로탐색, 신문제작과정 및 기사작성법 등을 주제로 강의를 하는 것이다.

무로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7월부터 11월까지 이뤄지며,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1개 학급 규모)가 참여할 수 있다. 수업은 1-2시간으로 실시된다.

참가를 원하는 학교(학급)는 8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배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 가능합니다.
- 소리가 웅웅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9층내국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마을소
국제보청기(국제보청점)
한라체육관
일내수영장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그랜드보청기

가정의달 보청기 파격 대할인
보청기전 브랜드 50~60%대할인!!
삼촌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렸습다!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체◎

제주시 서귀포시 전지역 방문 관리 서비스
보청기 모든 제품 보상판매 서비스

※ 세계금연의날 기념 청각장애 및 흡연자 이신분들
금연카드 무료로 가정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금연파이프, 시팅, 가리권, 구취제거제, 은단, 비타민)

NAVER 그랜드보청기 검색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뽕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드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드스 제품
- 왜! 와이드스 보청기 일까요?
-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 와이드스 보청기 제주센터

심의번호 2018-GN1-11-0011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3층
와이드스 보청기
광양사거리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